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60

인생의 뒤안 길에서 .

일전에 대만방문을 계기로 중국혁명가 쑨원의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을 그린 영화 '100 년 앞을 내다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쑨원은 청왕조를 무너뜨리고 억압과 빈곤으로부터 민중이 해방되기를 바라던 기독교인 의사였습니다.

부인인 경령(慶齡)은 중국의 명사인 찰리 송가의 미녀 세 자매의 차녀로, 장녀는 대재벌인 당주공양조(當主孔祥熙)의 부인입니다. 여동생인 미려(美麗)는 대만의 초대총통인 장개석(蔣介石)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의 아버지인 찰리 송은 미국 유학을 계기로 목사가 되어 후에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회에 대만을 방문했을 때 장개석(蔣介石) 총독 관저를 방문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세 자매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모택동(毛澤東)에게 패배하고 대만으로 옮겨 중화민국을 건국한 그는 목사의 딸이었던 아내 미려(美麗)의 기도 그리고 장모와 결혼할 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개석(蔣介石) 44 세의 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생활은 변화되었고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기도드리며 성서를 읽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고백과 함께 총독관저에서의 생활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소개되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장개석(蔣介石)이 예전에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격동의 역사 길목에서 목사의 딸과 결혼한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 중화 민국 건국후에는 총통관저에서 온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격동의 지진 재해로부터 1 년 8 개월이 지난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내일이 오겠는지요.

지금도 온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관저에서 장개석(蔣介石)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과 송가 세 자매의 발자국을 더듬어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묘한 섭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목사의 가정으로 인도되어 이윽고 역사의 무대에 서게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거대 지진 재해 속에서 방황하며 이렇듯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지요.

화제를 돌려서, 여행을 3 배 즐기는 사람은 첫째 출발 전에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기분을 맛보고, 둘째 여행지에서 여행을 만끽하고, 셋째는 여행에서 돌아오면 사진등을 보며 즐거웠던 여행을 음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허둥지둥 식사를 끝내는 저와 요리의 분위기까지 넉넉히 맛보는 사람과 정말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로, 떠나기 직전에서야 겨우 허겁지겁 준비합니다. 돌아와서도 정리할 틈도 없이 여행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마치 불꽃이 한 순간에 타들어가 사라지는 실로 아까운 여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행지에서 귀국후 영화를 보며 평상시와는 다른 여행후의 기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여로를 걸을 때 뒤돌아보며 미소짓고 펼쳐진 미래의 길을 바라보며 가슴설레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가며 그날 그날의 여행에서 3 배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월 1 일)

지난 주 흑인 가스펠 가수인 **ALFIE SILA** 를 초대하여 지진 재해 지원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직 없어서 결혼식장을 빌렸습니다. 지방신문에서도 소개가 되어 제법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교회에도 많은 분들로 자리를 채워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교회건축은 당초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집을 잃은 많은 분들의 주거를 위한 건축과 또한 지진 피해지역의 일손부족등을 생각하면 그래도 빠른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 지진피해 지역은 새집 건축이 착공까지 1 년이나 2 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주에는 철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설계한 것인데 새삼스럽게 제 자신 스스로가 놀람과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왜인지요. 입지 환경이 좋아서 눈앞에 있는 간선도로의 완만한 커브를 따라 달리면 교회를 향해서 차가 달리는데도 마치 교회가 날개를 펴고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출입금지 구역이 돼버린 고향을 향해서 교회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희들에게는 미래를 향해서 날개짓하는 날개와도 같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교회로부터 발산되는 힘이 있을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세워지는 이 날개를 편 교회가 황혼이 질 무렵 정확히 고향을 향해 세워진 십자가 너머로 쌍무지개가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달아내린 무지개 현수막 같이 보였습니다.

평화를 연주하는 부흥의 심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히로시마(廣島)를 향한 기내에 있습니다. 예전에 원자폭탄(atomic bomb) 투하후 '70 년은 초목이 자라지 않는다'고 한 히로시마입니다.

그러나 원폭투하로부터 히로시마(廣島)는 부활했고 이것이 저희 후쿠시마(福島)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멀리 보이던 히로시마가 지금은 가깝게 느껴집니다.

어제는 아내와 좌고엔지(高円寺)에서 상연된 '석관'이라는 무대극을 봤습니다.

당시 25 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에 의해 집을 쫓겨나와 원전에서 30 킬로 권내에 있는 마을사람들이 이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빈 집이었던 이전의 피난 구역이 지금은 체첸공화국이나 보스니아등으로부터 내전을 피해 피난온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포탄을 맞으며 살아남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포탄의 위협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요.

우에노(上野)에서 제 2 차 대전시 미국 주재 일본계시민이 돌연 재산을 몰수당하고 수용소에 보내져 2~3 년 간 각지에서 괴로운 수용소생활을 하며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자수나 가구등을 전시하는 작품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가서 땀흘려 노력해서 모은 전 재산을 태평양 전쟁 발발로 인해 몰수당하고 수용소에 보내져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재출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고통과 괴로움을 말 없이 견디어내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디다. 그 애절한 마음을 긍정적으로 작품을 통해 표현한 의지를 눈 앞에 대할 때 숙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집을 잃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미국을 결코 미워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미래를 향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표현한 작품은 시대를 넘어 저희들에게도 전해지는 듯 합니다.

(11 월 10 일 토요일 하네다(羽田)~히로시마(廣島)편)

저는 지금 미야자키(宮崎)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0 일간 예정으로 미야자키(宮崎)~시즈오카(静岡)~가나가와(神奈川)~후쿠오카(福岡)를 돌게 됩니다.

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92 세인 여성도님과 이별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피난 생활로 몸이 쇠약해지셨는지요. 이곳 이와키시(いわき市)로 오신 후부터 몸이 편찮으셔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후에는 친척이 있는 도쿄의 양로원으로 여행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외출해야할 때에 그 분이 이사하시기 때문에 미리 작별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시편 23 편과 121 편을 읽어드리자 이미 그 구절을 암기하고 계셔서 저와 같이 말씀을 외셨습니다. 그 분은 진정 그 말씀 대로인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부는 이 성도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쁠 때나 괴로울 때,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동요하시지 않으시고 잠잠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드리시며 교회와 저희부부를 지금까지 받들어주셨습니다.

지진 재해 때는 고향에서 아이즈(會津)까지 피난할 수 밖에 없어서 그 후로는 저희들과 함께 요네자와(米澤)를 향해서 눈보라 치는 고개를 넘으셨고 도쿄에서는 집단 피난생활을 하셨고 또다시 후쿠시마현(福島縣)으로 돌아오는, 마치 영화 같은 격동의 여행을 해오셨습니다.

90 세 넘은 그 분에게는 이 여행이 얼마나 가혹한 여행이었겠는지요.

제가 이 여성도님을 '교회의 보물입니다'라고 말한 그대로 이 분은 교회와 저희들에게 값진 보물입니다.

이렇게 지진 재해 후에도 소중한 분들과 이별을 해야만 하는 것이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 분은 이제까지의 인생에서 결단코 남을 욕하지 않으셨고 소문에 가담하는 일도 없었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한 신앙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분을 생각하며 저희도 비록 고향과 집에서 쫓겨나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다 하여도 앞을 향해 전진해야겠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슬프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보물인 백성'의 앞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성서를 통해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 장 6 절)

(11 월 21 일 하네다(羽田)~미야자키(宮崎)편)

특급 '기리시마'를 타고 비 내리는 미야자키현(宮崎縣)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후쿠시마현(福島縣)에서 온 많은 피난민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사능오염을 피해 도쿄도 안심이 안 되어서 이곳에까지 옮겨살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제 2 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요.

그건 그렇고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보면 이곳도 서남전쟁(西南戰爭)의 무대입니다. 사쓰마(薩摩)와 관군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원정으로 온 병사들 중에는 뒤에 이 땅에 정착하게 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에 따른 변화에 휩쓸려 고향을 떠나 생각지도 않던 땅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 전쟁으로 혹은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 기리시마(霧島)가까운 곳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1 월 22 일 특급기리시마 차창에서)

가케가와(掛川)에서 하카타(博多)로 향하는 신칸센 안입니다.

그저께 96 세인 성도님이 도치기(栃木)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아침은 건강하셨는데 용태가 급변한 것 같습니다. 그 분은 작년 3 월 대지진 재해에 뒤이은 원전사고 직후 고향을 쫓겨나와 피난처에서 그대로 현에서 떨어진 양로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로 서서히 몸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셨는데,,, ' 정말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양로원에서는 외출이 힘들어 결국 한번도 후쿠시마(福島) 자택으로 돌아오시지도 못하신 채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들의 마지막 고향이라고는 해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먼저 글에 쓴 92 세의 노부인도 어제 관동양로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후쿠시마로 돌아오신 후 편찮으셔서 한 때는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회복은 되었지만 체력의 한계를 느끼시고는 양로원에 입주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저는 시즈오카(靜岡)에 있어서 입회할 수 없었습니다만 후쿠시마에서는 눈물로 이별회를 한 것 같습니다. 관서(關西)나 규슈(九州)에 있으면 왠지 지진 재해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지진 재해후 1 년 8 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기 보다 오히려 지진 재해 때의 상처가 보다 블로우(body blow)와 같은 통증으로 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진피해지역에 세워지는 날개를 편 교회 십자가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겠는지요.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희망의 심볼이 되어주겠는지요.

(11 월 28 일 하카타(博多)행 신칸센에서)

특급 '카이지'로 신주쿠(新宿)에서 고후(甲府)를 향하고 있습니다. 야마나시(山梨) 현민 크리스마스회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테마는 '지진 재해 속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지진 재해후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스치는데 지진 재해후의 도정은 아득히 멀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도님 두 분이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습니다. 후쿠시마현(福島縣)사람들도 고향을 떠나 가만히 숨죽이며 각지 임시 숙소에서의 생활을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평상시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이상한 풍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 월 7 일 고후(甲府)행 특급 '카이지'에서)

요전에 돌아가신 96 세인 남성도님의 초상화를 보내주셨습니다. 피난처인 양로원에서 편찮아지셔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남겨진 그분의 돌아가셨을 때의 표정이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장례식을 해왔습니다. 그중에는 미소를 지으시는 편안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고 있는 표정이라니,,,

그리고 보니 지진 재해후 몇번인가 입주하신 양로원을 찾아 뵈었을 때마다 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며 '선생님을 뵈는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 같습니다' 라고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천국여행을 떠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리운 부인을 만나게 되어 활짝 웃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해군장교였던 그는 제 2 차 세계대전에 패해 알콜 중독이 되어 부인이 무척 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생활 중에 어느날 부인이 남편의 셔츠를 사서 선물했을 때 그는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술 사 와'라고 말하며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부인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왜 부인이 사죄할 필요가 있었을까고 생각했는데, 그 때 남편의 마음이 감동되어 훗날 부인과 함께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인이 돌아가시고나서 그는 술과 담배를 끊고는 96 세까지 장수하였고 지진 재해 중에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인의 사진을 보며 아침인사를 하고는 산책을 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면서 농업에 애쓰는 지상생활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부인을 향해 '늦었지만 이제 왔어요' 라고 말하며 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 월 9 일 東海道新幹線 기후(岐阜)에서 돌아가는 길)